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21(금) ~ 2025.3.27(목)

제공일시 2025 4 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3.21(금) ~ 2025.3.27(목)

제공일시 2025 4 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핵심광물 확보 위해 47개 전략 프로젝트 선정

- 유럽연합(EU)이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와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해 47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에너지 전환과 안보에 필수적인 17개 원자재 중 14개 원자재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7개 전략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함
- 이번 프로젝트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13개 EU 회원국에서 추진됨
- 세부적으로 △추출(25개) △가공(24개) △재활용(10개) △대체 원자재 개발(2개) 등 원자재 가치 사슬 전반을 포괄함. 대상 원자재는 리튬, 니켈, 희토류,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망간, 흑연, 마그네슘, 텅스텐 등 14개임

[\(더구루 2025.3.26\)](#)

2. 호주, 자연환경 상품화 본격화… 2300억원 투자해 생물다양성 시장 키운다

- 호주 정부가 자연환경을 상품화하는 ‘자연복구시장(Nature Repair Market)’ 육성에 본격 나섬
-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2억5000만호주달러(약 2308억원)를 투자해 자연 보호구역을 3000만 헥타르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이번 투자로 현재 초기 단계인 호주의 자연복구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 타냐 플리버섹 호주 환경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호주가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물의 최소 30%를 복원한다는 세계적 공약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자연보전을 넘어 ‘생물다양성 시장(Biodiversity Market)’ 육성까지 겨냥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3.25\)](#)

3. 중국, 트럼프에 채찍 대신 당근? “전기차 등 대미 수출 제한 검토 중”

-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보복 관세로 미국과 대립 구도를 이어가기보다 대미 수출을 줄여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임
-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 고문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대(對)미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배터리, 전기차 등의 대미 수출을 제한해 미국의 ‘중국 무역 불균형’ 비판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보도함
- 중국 정부 고문들은 WSJ에 “중국 당국은 (미국과)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협상하는 대신 해당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기회를 얻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함

[\(머니투데이 2025.3.23\)](#)

국내 정책

1. 정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선도기업 직접 투자 지원 검토”

-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함.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함
- 정부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함
-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섬
-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함

[\(헤럴드경제 2025.3.25\)](#)

2.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업 모집… 최대 42억 지원

-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24일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힘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4월 18일까지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음
- 환경부는 설명회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관리 등 환경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의 경우 1건당 최대 42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임
-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우 1건당 3억원,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1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뉴스1 2025.3.23\)](#)

3. 기후위기 속 물 부족 공동 대응…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 공식 출범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 코카콜라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코리아와 체결한 기존 협약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민관이 함께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둠
- 협력체 참여 기업들은 △공정 내 용수 재활용 확대 △하·폐수 재이용 △유역 수질 개선 및 물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됨

[\(전기신문 2025.3.21\)](#)

글로벌 기업

1. 세계 1위 도요타, 전기차 개발 속도 조절하나

-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규슈 후쿠오카현에 짓기로 했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착공을 당분간 연기한다는 방침임
- 24일 아사히신문은 사토 고지 도요타자동차 사장이 이른 시일 안에 후쿠오카현을 방문해 착공 연기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사히는 “새로운 공장은 렉서스 차량을 제조하는 도요타자동차 규슈 공장과 가까워 배터리 공급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며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도요타가) 전략 재검토를 단행했다”고 전함

[\(문화일보 2025.3.24\)](#)

2. 화웨이, 엔비디아 맞먹는 AI칩 양산… 딥시크에도 들어가

- 12일(현지시간) 레나트 하임 랜드연구소 연구원이 X 게시물을 통해 중국의 ‘어센드910C’ 양산 소식을 전함. 지난해 화웨이가 “내년 1분기(1~3월)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 AI 칩을 양산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현실화된 것임
- 23일 관련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어센드910C는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밝힌 AI 칩임. 중국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국영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AI 전환을 위해 공급될 예정임

[\(동아일보 2025.3.23\)](#)

3. 베트남 빈그룹, 베트남 재생에너지 사업에 최대 44조원 투자 계획

-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 빈그룹이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력개발계획에 4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 25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빈그룹은 베트남 총리와 부총리에게 문서를 보내 2021~2030년 기간의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일명 ‘파워플랜8’)에 대해 총투자 규모 250억~300억 달러(약 36조7100억~44조520억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추가를 제안함

[\(아주경제 2025.3.26\)](#)

4. 엔비디아·xAI, 44조 규모 ‘AI 인프라 펀드’에 참여

-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xAI가 미국 AI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MS), UAE 투자 펀드 MGX가 지난해 9월 설립한 컨소시엄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합류했다고 보도함
- AIP의 주요 목표는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임. AIP는 AI 인프라와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유치 중으로, 부채 금융을 포함해 최대 1000억달러(약 146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AI타임스 2025.3.20\)](#)

국내 기업

1. LG엔솔,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와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계약 체결... 유럽서 LFP 배터리 생산 본격화

-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됨
-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Polska Grupa Energetyczna)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힘
-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는 현지 북부 자르노비에츠(Żarnowiec) 지역에 약 1GWh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2027년 본격 상업 가동이 목표임
-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6년부터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임

[\(위크투데이 2025.3.25\)](#)

2. '삼성물산 건설' 베트남 연짱 발전소, 상업용 전력 생산 일정 구체화

- 삼성물산이 수주한 베트남 연짱(Nhon Trach) 3·4호기 복합화력발전소의 상업용 전력 생산 일정이 구체화됨. 3호기의 경우 올해 8월, 4호기는 올해 11월로 각각 예상됨
- 24일 베트남기계설치공사(Lilama, 릴라마)에 따르면, 연짱 3호기는 현재 발전소 증기 시스템을 환기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작업이 끝나면 오는 8월 상업용 발전에 들어감. 연짱 4호기는 현재 윤활유 파이프라인을 청소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국가 전력망에 동기화될 예정임

[\(더구루 2025.3.24\)](#)

3. 현대제철, '8.5조 투자' 美 최초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 2029년 상업가동

- 현대제철이 미국 최초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에 58억달러(약 8조5200억원)를 투입함. 연간 270만 톤(t) 규모로 2029년부터 가동하고,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응함
-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 총 58억달러(약 8조5200억원)를 투자해 전기로 제철소를 짓는다고 25일 밝힘. 약 1700에이커(약 688만 m²) 부지에 연간 270만 t 규모로 지어지며,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함

[\(더구루 2025.3.25\)](#)

4. OCI홀딩스, 美 텍사스에 태양광 셀 공장 설립... 2억6500만달러 투자

- OCI홀딩스가 텍사스에 태양광 셀 법인을 설립하며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공급망 구축에 나섬. OCI홀딩스가 추진하는 공급망은 OCI TerraSus(폴리실리콘)-신규 셀 법인-MSE(모듈)-OCI에너지(태양광 발전)임
- 투자금액은 2억6500만달러(약 3840억원)임. 내년 상반기 1GW 셀 생산, 하반기 1GW 이상을 증설할 계획임

[\(매일경제 2025.3.20\)](#)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3.21(금) ~ 2025.3.27(목)

제공일시 2025 4 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네덜란드, EU 최초로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프로젝트에 배출권 허가

- 네덜란드 정부가 EU 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에 온실가스 배출권 허가를 발급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네덜란드 배출권관리청(NEa)은 포르토스(Porthos) CCS 프로젝트에 대한 배출권 허가를 승인했으며, CCS 기술이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에 적용된 건 유럽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임

- 포르토스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북해 해저에 폐기된 천연가스층에 연간 약 25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주입·저장할. 로테르담 항구의 산업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해안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고갈된 가스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EU ETS 참여를 위해서는 배출권 허가가 필수임. 이에 네덜란드 배출권관리청은 포르토스에 일부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배출권 허가를 발급했음. 이 기준에는 연간 저장량 보고, 이산화탄소 수령 및 주입 절차 등이 포함됨

- 포르토스 프로젝트는 EU가 지정한 공동 이익 프로젝트(European Union Project of Common Interest, PCI)로 선정됐으며, 커넥팅 유럽 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로부터 1억2000만유로(약 1902억원)를 지원받았음. 이는 PCI 같은 유럽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해주는 EU의 공식 기금임. 로테르담 항만청, 네덜란드 인프라기업 가수니(gasunie), 에너지기업 EBN이 컨소시엄으로 개발했으며, 2026년 본격 가동될 예정임

- 네덜란드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CCS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함. 195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량은 가까운 곳에 적절한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 또한 네덜란드 탄소 배출량의 약 14%가 로테르담 항구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로테르담 항구 지역을 통과하는 공동 파이프라인에 탄소를 공급하고 고갈된 해상 천연가스전에 탄소를 저장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는 연간 2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 용량을 연간 5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임. 포르토스는 향후 15년 동안 운영될 예정으로, 최대 37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배출권 허가 이전에도 네덜란드 경제기후부(EZK)는 포르토스에 대해 저장 사업 허가를 별도로 승인한 바 있으며, 광산감독청(SSM)이 사업의 안전성과 저장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함. 관리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CCS 프로젝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 '아라미스(Aramis)' 프로젝트가 북해 내 소규모 가스전 여러 곳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아라미스는 포르토스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선박과 CO2 전용 터미널을 통해 운송됨

- 한편, 국제 탄소시장협약체(ICAP)가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CCS 전 과정을 ETS에 포함하는 국가는 EU와 영국 두 곳 뿐임.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을 포집하는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에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네덜란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첫 배출권 허가를 통해 대규모 탄소 저장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포르토스 배출권 허가는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임팩트온 2025.3.25\)](#)